

和 答 歌 攷

— 妓女 時調 中心으로 —

李 樹 鳳

目 次

- | | |
|-------------------|-------------|
| I. 序 言 | 2. 月娥와 朴繼叔 |
| II. 古今의 妓女觀 | 3. 笑春風과 酒宴譚 |
| III. 妓女 和答時調와 風月譚 | V. 結 言 |
| 1. 寒雨와 林白湖 | |

I. 序 言

여기 試圖하는 和答歌는 그 尤大한 風流者의 和答歌 資料中 特히 妓女間에 和答된 時調에 限한 風流譚을 살피는데 局限한다.

예로부터 男女間의 愛情度는 여러가지 形態로 表出되어 왔지만, 京鄕間에 士人들의 風流的 雅趣는 現世의 酌婦에서 찾을 수 없는 至高한 境地에 沒入해 있었다. 다시 말하면 享宴의 雰圍氣는 어떤 異性이라는 必然的인 慾求關係라기 보다는 仙翁과 仙妓의 享趣의 道樂의 雰圍氣였다고 表現하는 편이 좋은 듯하다. 하기가 예나 이제나 다를 바 없는 天艷美色型도 있겠고, 奇麗可愛型도 있겠고, 優雅可賞型의 妓者 乃至는 風流者의 相關關係였겠지만 主로 可賞하는 風流者가 옛날의 士妓와 士人의 風流的 興趣였을 것이다. 여기 和答時調 몇 首에서 옛날의 風流者의 雅趣를 살피면서, 妓女者의 史的인 概念을 아울러 若干 言及한다.

II. 古今의 妓女觀

妓女라 하면 現今의 觀念으로 賤視하는 것으로 酌婦에 비기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다. 옛날의 娼女, 妓女는 類聚群遊하는 享樂의 雰圍氣를 高潮시키는 同等한 相樂關係가 妓女였다고 본다. 그것이 男尊女卑의 社會로 轉落된 以後부터 暫次的으로 賤視하게 되어 遊興街의 酌婦로, 花柳街의 娼女라는 概念으로 굳어지고 말았다. 現世의 男女同等 社會에 어찌 妓女의 賤視觀이란 表現이 女權을 冒躐하는 것으로 誤解할 사람이 或時 있지 않을까 하여 妓女의 所終來를 簡單히 살펴보면, 李能和의 朝鮮解語花史에 娼女는 이미 新羅時代부터 있었다고 했다.

或曰 新羅中葉에 始奉源花^호니 是爲妓女之濫觴이라 卽如 三國史記 新羅本紀에 第二十四代 眞興王三七年春에 始奉 源花^호니라 初君臣이 病無以知人^호야 欲使類聚群遊^호야 以觀其行義 然後에 擧用之라. …… 崔致遠鸞郎碑序에 曰 國有玄妙之道^호니 曰風流니 設教之源이 備詳仙史라 云云^호니 由是觀之^호면 則源花는 卽今之妓生이오, 花郎은 如今之美童이오, 風流郎徒는 如今之外入匠이라. ⁽¹⁾

라하여 妓生, 美童, 外人匠으로 區分하였는데 다시 이를 註解하였는데 보면,

(1) 李能和, 「朝鮮解語花史」第一章, 新羅時代 已有娼女 p.1 張條 參照

(妓生) 我古俗에 妓學醫藥之術, 歌舞之伎라 故名妓生이니 如支那之妓 謂教書之類也이라……李能和曰 新羅源花 花郎之制는 本非花柳之社會오, 而乃人物之墟鞠也이라.⁽²⁾

라 하여 妓學은 本是 醫藥之術이요, 歌舞之伎로 古稱하여 「妓生」이라 불렀다고 했으며, 新羅의 源花 制度는 本是부터 花柳의 社會가 아니었음을 確證한다. 그러나 金庾信의 天官女說話를 보면 分明 當時에 娼女가 있었음을 事實이었다.

蓋金庾信이 年十五에 亦曾爲花郎矣. 則其天官風流之情. 薄倖之名을 自可想見也로다 雖然이나 由此文觀之하면 庾信之所興遊者는 非道義之徒衆이오 而乃屠沽小兒輩也며, 之所興宿者는 非奉事之源花오 而乃賣笑之女娼也니 則是在庾信謝退花郎社會. 而家居修之時也라 由是而亦可知 新羅源花之制存在同時에 亦有淫坊賣娼之俗也로다.⁽³⁾

라 하여 源花花郎制와 同時에 淫坊賣娼의 風俗이 있었다고 하였으니 羅代부터 娼女坊이 있었다. 그러기에 金庾信이 天官女와 더불어 交遊다가 자주 天官女집에서 同宿코 온 것을 알고 母夫人에게 장차 國家의 大事를 앞두고 功名에 힘쓰지 않음을 叱責 當하고부터 스스로 天官女와의 絶交를 盟誓했는데 하루는 술에 醉하여 歸家하는데 平素에 늘 다니는 天官女집으로 말이 案内했다. 天官女는 누구보다 반가히 金庾信을 歡待했다. 술에 깨어 精神을 차린 庾信은 天官女 앞에서 달머리를 베어버리고 돌아갔다는 史實은 庾信이 한동안 娼女 天官女에게 戀情이 깊었다는 事實을 들 때, 羅代부터 娼女가 있었음을 뒷받침 한다. 그리고 또한,

高麗太祖 統一三韓할지 百濟遺民에 有水尺者하야 屢強難制라 編爲奴婢하야 屬之各官하니 其婢之有色芸者爲妓하야 容飾粧習歌舞하니 此即高麗女樂之始라…… 忠烈王五年에 暹州郡妓하야 充教坊云云하니 由是可知高麗妓制라…… 李能和曰 星湖李先生이 謂我東妓種은 出於楊水尺하니 蓋楊水尺이 隸邑籍하야 男爲奴. 女爲奴하코 而婢又爲妓하야 在乎水尺降于丹兵之後라…… 男生爲奴하코 女生爲妓하니 此吾東有妓之始也云云……」⁽⁴⁾

라 하였음을 볼 때 오늘날 妓女의 名稱은 麗代에 와서 百濟遺民 水尺者를 各官屬에 奴婢로 編制했는데, 그 婢者들이 有色芸者로 容粧과 習歌舞한 것이 麗代女樂의 始發이요, 또한 그들은 妓女라 名稱했는데, 그것보다 羅代에는 芸女를 醫者, 伎者라는 概念으로 傳來했는데 麗代에 와서는 그 概念이 女樂, 女妓(婢)로 轉落되었고, 李朝에 와서는 麗代처럼

蓋古之有妓는 以女樂也라 李朝承襲高麗之制하야 亦置妓爲女樂하야 用於內宴하니 曰 進豐呈이오 亦去進宴이라 國有慶事. 則行之하니 命下列郡하야 選上妓女하야 隸于樂院하야 練習歌舞하니……」⁽⁵⁾

라 하였으니 麗代 때부터 教坊에서 歌舞를 길러 暹州郡妓者를 八關會, 燃燈會에 女樂으로 參與하고부터 高麗女樂으로 君臨하여 그 傳統이 女樂으로 굳어졌고, 그것이 李朝에 와서는 國慶에 各州郡에서 選妓하여 歌舞를 習練시키는 隸樂院이란 機關을 設置했다는 事實로 볼 때 現世의 內宴行事時 妓女라는 概念과는 判異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麗代의 灘禮, 燃燈會의 女樂이 民間에 俗化되고 墮落되어 李朝에 와서는 州郡의 官妓가 上典의 戲花로, 兩班階級の 愛妾으로 俗化되어 賤待받는 女人으로 轉落되었다.

眞正한 妓者는 古수를 莫論하고 國樂의 傳授者요, 個人的인 特伎者로 觀客 앞에 서는 舞台人인 것이다. 적어도 그들은 各州郡의 教坊에서 一定한 期間동안 嚴格한 教育을 받고 官妓로 從事하다

(2) 上同

(3) 上同 p.2張

(4) 上同 p.4張

(5) 上揭書 p.18張參照

가 退妓로 守節했다. 그리고 鄉坊의 妓者라 할지라도 어떤 宴席에서 반드시 風月로 和答하는 才妓로, 雅趣에 沒入케 하는 琴妓로, 舞鼓의 가락에 嬌態를 表現하는 戲妓로, 목청의 特技를 자랑하는 唱妓로써 酒興을 돋구는 舞台者요, 特技者요, 同席者의 身分인 것이지 現수의 概念처럼 單順한 酌妓요, 賣春者로 誤認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Ⅲ. 妓女 和答時調와 風月譚

妓女와 和答이라 하던 먼저 黃眞伊를 빼놓을 수 없다. 이미 國文學에 널리 紹介된 비와 같이 明月, 寒雨, 笑春風, 梅花, 松伊, 洪娘, 小栢舟 등의 妓者 時調가 많은데 時調 和答歌로 風月譚이 傳하는 것은 寒雨와 林白湖의 것이 있고, 다음으로는 成宗御前의 宴席에서 和答한 笑春風의 것이 있고, 또 하나는 近者에 筆者가 紹介한 月娥와 朴繼叔의 和答歌 밖에는 아직 文字로 밝혀진 것이 없다. 勿論 宋純, 碧溪守, 徐花潭 등과 黃眞伊에 얽힌 逸話로 有名하리 만치 그의 絶妙한 詩唱이나 琴律이나 漢詩의 才能이 餘他 妓者들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才妓譚을 여기서 普及하지 않은 것은 時調和答歌가 傳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高麗朝 文臣이요, 大詩人 鄭知常이 平壤妓의 送別詩에,

兩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라는 感動의 詩는 經典 佛說에 말하는 人生八苦의 하나인 양 「而愛別離苦」⁽⁶⁾라 하듯이 男女가 서로 만나서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離別없이 지냄이 피차의 慾望이나, 민남이 적고 이별이 많음은 곧 妓界이니 이런 哀切한 衝動이,

不親이면 無別이요, 無別이면 不相思라 相思不見相思懷는 不知無情不相思라, 엇지랴 青春人生이 일로 白髮.

라는 和答歌가 妓界의 어느 누구에 의하여 읊어져 오늘에 이르기까지 傳하고 있으니 이런 類의 和答歌는 不知其數일 것이나, 여기서는 和答歌의 主人이 밝혀진 것만 살핀다.

1. 寒雨妓와 林白湖

李朝의 天才詩人 林白湖는 「神骨이 玲瓏하고 識見이 瑩澈하며 氣稟이 高潔하고 才學이 夙成하여」⁽⁷⁾ 處口에 流浪하면서 奇譚을 남긴 感傷의 詩人으로 南은 廣寒樓에서 北은 浮碧樓에 이르기까지 차라리 薰爭의 唱波를 벗어나 山水를 流浪하면서 詩酒와 文章과 戀譚으로 逸話を 남겼으니, 저 有名한 黃眞伊의 무덤에 時調一首를 읊어 痛哭하였다는 奇話하며, 嬌艷한 姿色으로 教坊의 第一라는 平壤名妓 一枝梅를 魚物商으로 變裝하여 詩戲로 佳緣을 맺었다는 有名한 逸話가 있는가하면 어느 童妓에게 詩를 읊어 「莫怪降冬贈扇枝 彌今年少豈能知」로 적어 扇贈하니 「相思半夜胸生大 獨勝炎蒸六月時」란 和答에 感服했다는 逸話들을 남기고 38歲로 一生을 마치는 동안 「詩는 三舍에 比하고 樓가 架空한 듯한 奇男이다.」⁽⁸⁾ 한 申欽과 李白沙와의 對話에서 그 爲人을 알리는 것처럼 到處에서 奇談을 남긴 林白湖의 流浪行脚 中에 寒雨와 의和答歌를 보면,

北天이 탐다거늘 우장없이 길을 나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미로다.
오늘은 찬비 맞아서니 얼어잘가 하노라.

(6) 上揭, 解語花史, 八十張 參照

(7) 金台後, 朝鮮小說史, p.74 參照

(8) 上揭同

어이 얼어자리 무슨일 얼어자리
 鸞鴛枕 翡翠衾을 어찌두고 얼어자리
 오늘은 찬비 맞아서니 녹아잘가 하노라.

라는 和答으로 寒雨의 節慨를 겪고 士友의 술내기에 이겼다는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은, 實로 白湖의 多才能筆은 많은 妓女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더우기 그의 戲言에 「내가 中國의 六朝때 낫더라면 輪遍天子라도 될 것일」이라는 自稱自慢은 그가 臨終 때 여러 子女에게 「四海諸國이 나를 帝王이라 稱하지 않으니 내 어찌 能히 홀로 我邦에서 終古하리니, 내 생은 陋巷에서 이 같이 지내다가 편히 죽을 진대 어찌 나의 죽음을 哀惜하리오.」하면서 태연히 눈을 감았다는 事實을 볼 때 實로 林白湖의 風流는 凡人을 超越했음이 짐작된다.

2. 月娥妓와 朴繼叔

朴繼叔(1569~1646), 字 丕胤, 號 伴繁軒으로 1596 武科에 及第하고 宣傳官, 訓練院副正을 거친 壬亂 原從功臣으로 名望이 높은 분으로 37歲 때(1606) 當時 蔚山兵使 金應瑞와 判官趙誠立과 함께 宣傳官으로 會寧 邊防을 赴北할 때 적은 赴北日記 속에서 筆者가 發掘한⁽⁹⁾ 時調로, 1607年12月27日 鐘城에서 妓女 月娥와 朴繼叔이 和答歌로 雲雨의 情으로 因緣을 맺은 實話譚이다. 月娥에는 반드시 文酒와 色이 따른다. 兩班의 赴北行脚은 風流客의 遊覽길과도 같다. 가다가 목이 마르면 술을 마시고, 밤이던 主倅들의 進饌에 飽食하고, 때로는 美姬의 薦枕을 받고, 눈에 거슬리면 苔荆을 내리고, 景致가 좋으면 며칠을 두고 文酒로 遣日하다가 다시 생각난듯 赴北길에 오르는 옛날의 赴北行脚은 바로 風流客이었다. 여기 朴繼叔의 日記 속에서 月娥와 緣分을 맺는 風流的인 生活을 譯해 보면

12月25日 鏡城南門外 民家에 宿所를 定하고 一行 몇 사람과 城門을 散策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옥색 저모리에 붉은 치마로 곱게 단장한 한 女人이 蓮步로 눈섭을 살짝 낮추며 내 앞을 지나 가더라. 나는 그 女人을 오래도록 지켜보다가는 드디어 말을 거는데 成功했다. 「나는 嶺南땅에 사는 風流客인데 내 이름이 널리 朝廷에 알려져 있음은 그대 나의 行裝을 보아 백가지를 짐작하리라. 지금 북쪽 오랑캐를 征伐하러 가는 길인데 나는 온갖 寶物을 가지고 있다. 그대 必要한 것을 求하지 않으려나?」하니 그녀는 먼저 알아차리고 빙그레 웃으며 말하기를 「이곳은 寶物을 가진 사람이 없고 南쪽 사람들이 寶物을 많이 가지고 있음은 이미 알고 있나이다. 請컨대 함께 따라가 놀기를 願하나이다.」하거늘 나는 그녀와 함께 客舍에 돌아와 오래도록 談笑로 즐겼다. 날이 저물어거야 그녀를 돌려 보냈는데 그녀의 이름은 愛春이요, 字는 釋香이며, 나이 20歲에 歌辭와 文章이 能하더라.

26日 간악한 말이 없어 부득불 머물게 되었는데 마침 愛春이 친구와 함께 나의 宿舍에 찾아 왔다. 반가히 두 女人을 房으로 案内하였는데 愛春이와 같이 온 그 女人은 나이 二八이요, 그 아름다운 옴모는 마치 西施나 王昭君의 美色을 가졌더라. 羅衫으로 반란 가리운 그 자태는 마치 가을 하늘의 구름 위에 솟은 반달 같고 곱게 꾸민 옷차림은 春塘에 비친 蓮花의 그림자 같더라. 이름은 숙春이요, 字는 月娥인데 歌辭와 바둑 장기 승씨가 보통이 아니고 더욱 가야금과 피리 승씨 또한 兼했다. 그리하여 숙春과 終日도록 談笑로 즐겼는데 어찌 男兒치고 春情을 못느끼랴. 나는 온근히 그녀게 戀情을 건넸다. 처음은 숙春의 態度가 마치 차돌처럼 단단하여 좀체로 그녀의 마음을 달랠 수 없었다. 그리던 참에 兵使의 승으로 내 處所에서 巡察使의 送宴을 주신하게 되어 끝내 숙春과의 情을 못 나눈 채 돌려 보냈다.

(9) 瑤翁, 赴北日記(1) 嶺南大文理大刊, 국어국문학연구, 第12輯 參照

27日 오늘도 亦是 갈아탈 말이 오지 않아 또 하루를 머물게 되었다. 배는 新正이라 客愁의 心懷는 더욱 견잡을 수 없었는데 마침 今春이 찾아 왔다. 「昨夜는 諸賓이 滿座하고 酒宴을 베풀기로 슬슬히 돌아갔나이다.」하며 은근히 웃더라. 이날도 終日 今春과 談笑하는 동안 날이 저물었다. 내 이미 집을 나온지 半年歲月이라 今春에 대한 타고르는 戀情은 도저히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와 나는 며칠 동안에 쌓인 은근한 情을 結局은 和答歌로 表現하게 되었다.

비록 丈夫乙 지라도 肝腸鐵石이라
堂前紅粉을 古戒를 사맛더니
冶城의 皓齒丹唇을 묻니즐가 흐노라.

라는 時調로 음으로 月娥(今春)가 和答하기를,

唐虞도 親히 본듯 漢唐宋도 지내신듯
通古今 達事理 明哲人을 어디두고
東西도 未分흔 征夫를 거려므슴흐리.

라 노래하며, 「明哲人을 어디두고 하필이면 身分도 모르는 男子를 사귀어 무엇하리.」라는 歌意로 拒絕하니 다시 朴繼叔이 和答하여,

나도 이러흐나 洛陽城東 蝴蝶이로다
枉風의 기불려 여긔저긔 돈니더니
塞外에 名花一枝에 안자보랴 흐노라.

앞에서 東西 未分의 사나이를 어떻게 사귀겠는가 라는 內容의 和答에 中國 洛陽과도 같은 우리 나라 서울 東쪽에 사는 범나비라 비록 時運따라 여긔저긔 다니더니, 城밖에 핀 한송이 아름다운 꽃가지에 어찌 앉을 수 없겠는가 라는 歌意는 솔직하고 대담하게 나비가 꽃을 보고 어찌 春情을 안느끼랴 하는 和答에 다시 月娥의 和答은

兒女戲中辭를 大丈夫信聽마오
文武一體를 나드 잠간 아노이다.
흐믈며 翩翩武夫를 아니겔고 었디리.

라는 노래는 처음은 「文武의 身分의 差와 確實한 住所를 모르는 男兒에게 어찌 情分을 맺겠는가」라는 노래에 身分을 超越하여, 「나비가 꽃을 사랑함이 당연하다.」는 노래로 月娥는 앞의 和答에 謝過를 兼하여, 「씩씩하고 으졌한 武夫를 사랑하지 않고 어찌 누구를 사랑하라.」라는 和答으로 春情이 물흐르듯 두가슴에 녹아흘렀다. 그리하여 그날 밤으로 雲雨의 情을 맺었다. 그로부터 며칠을 月娥와의 뜨거운 情을 나누었는데 견잡을 수 없었던 客愁를 마음껏 달낼 수 있었다는 內容의 日記다. 여기서 月娥의 和答歌는 이미 成宗 御前宴에서 笑春風의 和答歌에서 볼 수 있다.

3. 笑春風과 酒宴譚

成宗은 자주 君臣과 더불어 女樂으로 酒宴을 베풀었는데 하루는 永樂妓 笑春風을 불러 行酒케 했다. 笑春風이 領相 앞에 잔을 들고

齊도 大國이오, 楚도 大國이라
조고란 滕國이 關於齊楚하니
두어라 何事非君인가 事齊事楚하리라.

라 부르니 領相이 怒하거늘 笑春風이 다시 잔을 들고 武官 앞에 나아가.

前言은 戲之耳라 니말을 허물마오
文武一體인 줄 나눈 잠간 아움거니
두어라 赳赳武夫를 아니쫓고 어이리.

음으니 때에 武臣 兵判이 그 歌意를 알고 相臣이 將臣케 잔을 勸하니 武臣은 다음 차례가 내리니
생각하고 있는데 笑春風은 同座한 文衡에게 술잔을 勸하며

唐虞를 어제 본듯 漢唐宋을 오늘 본듯
通古今 達事理는 明哲士를 잇더타고
더실되 歷歷히 모르는 武夫를 어이 조츠리.

라 臨機應辯으로 和唱하니, 이 光景을 본 成宗이 크게 기뻐하여 笑春風에게 錦緞과 絹紬와 虎豹
皮와 胡椒를 賞給했다. 이런 戲詩를 妓女가 即席에서 읊었다는 것을 보아 月娥의 和答歌는 이미
鏡城地方에 널리 알려진 妓女間의 노래가 아니었을까 한다. 笑春風도 永興妓이고 보면 西北地方
에 널리 流行하는 노래가 틀림없다. 그런데 成宗元年(1471)과 朴繼叔 赴北時가 1606年이고 보면
135年이란 긴 歲月동안 이 地方에 流行되었다고 볼 때, 이 和答歌는 적어도 成宗朝 以前의 年代로
上廻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朴繼叔의 和答歌는 自身の 創作으로 봐야 하겠고, 또 이런 和答歌가 林悌의 寒雨의 것
뿐이었는데 多幸히도 새로 하나 發見되었다는 데서 國文學史의 意義도 있다. 더욱 特記할 것은
時調를 읊은 日時와 場所까지 昭詳하게 밝혀진 것은 적어도 朴繼叔의 和答歌가 처음이 아닌가 한
다. 여하튼 이런 和答歌 속에 담긴 風月譚은 살길 때 얼마나 로맨틱한 秘話가 담겨 있을 것인
가. 唐玄宗은 楊貴妃를 두고 牡丹 꽃은 말이 없이 아름다우나 楊貴妃는 말을 하는 아름다운 꽃이
라 하여 妓女를 解語花라 이름하여 風流客들이 이들과 함께 얼마나 情談이 交々되었은가 想像
해 본다.

V. 結 言

和答歌는 勿論 妓女들에게만 局限된 것은 아니다. 前言한대로 特히 文士들이 즐긴 妓女들-의
漢詩和答이나, 그밖에 才閨들과의 筆談戲答은 재쳐놓고 오직 妓女間에 얽힌 時調和答歌 몇 개를
가지고 살펴볼 때 지나지 않았다. 이 글을 살펴다가 보니 自然 妓女에 對한 一般人的 古今은 通한
妓女觀은 現수의 一般의인 酌婦가 아니고 特伎의 藝能者로 強調하게 되었다. 그러나 羅代부터 있
었던 妓者는 麗代에 와서 女樂, 醫女로 예우되었으나 濼禮, 燃燈이 退俗됨에 따라 妓道가 墮落되
어 李朝에 와서는 教坊에서 그 妓道가 嚴格했으나, 亦是 士人들의 戲花, 愛妾으로 轉落되어 그 妓
女觀이 身分의 賤待를 받고 말았음을 알 수 있었음은 否認할 수 없으나, 本末의 麗代의 妓女制度
는 現수의 妓女觀이 아닌 藝能의 特伎를 기닌 女樂이었음을 再強調한다.

다음 妓女の 和答歌는 士流들의 風月道가 高潔하게 傳授되는 가운데 戲花로 愛護되기도 하고,
愛妾으로 轉落되는 結緣過程의 極致가 바로 和答歌라는 媒介物이었음을 살길 수 있다. 그리고
哀惜한 것은 時調和答歌가 불과 몇 개 밖에 없기 때문에 多角의인 面에서 살릴 수 없었다. 그 중에
林白湖와 寒雨妓의 風月譚은 이미 여러學者에 依하여 考察되었기 때문에 月娥妓와 朴繼叔의 風月
譚에만 力點을 두었다. 그 많은 士流들의 風月譚 가운데 단지 몇 개만이 現傳한다는 것은 더욱
안타깝다. 이런 資料가 다시 發掘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